

## 바느질 협업자의 노트: 홍정화

금천 오픈스튜디오

드르럭 드르럭, 사각 사각, 사부작, 스프룩 스프룩...

원하는 법 조항을 옷 재단선에 달아준다는 말에 자신의 옷을 내어주곤 구경하는 친구,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관심을 가지다가도 누군가의 옷에 그 조항들이 바느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해볼게요!” 자신이 참여하기로 한 그 시점부터 관객은 호기심보다는 진지한 목소리로 “어디에 달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과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대답.

검은 리본에 하얗게 쓰인 법조항은 관객의 옷 재단선 여기저기를 유영하다 어딘가에 안착한다. 나는 그들의 옷에 그것이 잘 안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느질 솜씨를 부렸다. 디자인적 본능이 꿈틀거릴 때는 어디에 어떻게 착지시킬지 상상하면서 나와 관객은 같이 괜찮은 위치를 따라가게 되고, 마침내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것들은, 부드러운 질감 위에 바느질을 하는 동안의 나의 온기가 더해져 유연해진 모양으로 옷 주인의 일부가 되었고, 옷 주인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즐긴다. 이렇게 옷에 바느질해주었던 나였지만, 정작 나의 옷에 어떤 조항을 어느 곳에 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스튜디오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곳에 왔던 사람 중 누군가처럼, 나는 오픈스튜디오의 마지막 관객으로서 그날의 흔적들을 정리했다.

더레퍼런스 갤러리

그리고 1년여 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초겨울 날, 나는 갤러리 안 둥근 나무 테이블 위에 앉아있다. 법 조항이 적힌 누군가의 공간은 우리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누군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번호는 사라져갔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그들을 기다린다. 이윽고 계단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나는 관객에게 이곳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다 법 조항이 적힌 말려있는 리본 앞에 서면 궁금한 듯 표정을 한 관객과 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른다. 처음 만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가벼운 긴장감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말을 건다.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법 조항을 고르시면 입고 계신 옷에 바느질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들은 잠시 생각 한 뒤 밴드를 달 위치를 내게 알려주거나 어떤 조항을 할지 의견을 묻기도 한다. 약간의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선택했을까? 지금 그(그녀)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내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 매 순간이 새롭고 모든 사람이 매우 달랐다.

법 조항 타임-라인의 리본 조각과 관객 옷을 건네 받았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옷에 남아있는 온기를 들었고, 옷의 촉감을 읽었다. 손바느질로 옷에 리본 조각을 안착시킬 때에는 조금 떨렸지만 신중해야만 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왜 이 법조항 타임-라인을 골랐는지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선택한 순간의 경험을 잘 간직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느질을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들의 옷에 문구를 새기고 있었고, 바느질을 하는 손은 그 순간 섬세한 조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조항 타임-라인은 그들 개인의 신체를 감싸는 옷 위에서 그들의 일상으로 흘러들어가, 각자의 이야기로 다시 이해될 것이다.

섬세한 감성을 지닌 듯한 30대 남자는 덜 보이는 곳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고,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옷이 더 예뻐졌다며 기분 좋아했다. 양말에 흔적을 남겼던 20대 여자에게는 잘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늘어나는 바느질을 해주었고, 쿨하게 명품 재킷을 벗어 바느질을 맡긴 40대 남자는 안감에 오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 바지를 제외한 모든 옷에 모든 문구를 해달라고하는 30대 남자는 개인적으로 누구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휴가 나온 젊은 군인 두 명은 참여하고 싶지만 군복에는 달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였고, 그들이 선택한 법 조항 타임-라인들을 그들 손에 쥐어주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디에 놓았는지, 옷에 달았을지 달지 않았을지도 궁금해졌다.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후 그 흔적과 어떤 일상을 공유할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내 기억과 감정을 기점으로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는 이 작업을 통해 그들의 일상 속에 얹게 파고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또 한 명의 관객이다.’ 갤러리 안에서 누구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문구들, 리본 조각들과 지내면서 정이 들었다고 할까? 이제는 어떤 조항을 가져갈지 결정했고, 그것을 내 옷에 달았다. 한발 물러나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나는 그들과 비슷한 무언가를 했다는 기억을, 내 옷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을 수 있었다.